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re		<h1>보 도 자 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붙임 10쪽 포함)	
배포일시	2018. 09. 05.(수)	담당부서	주영한국문화원 공연팀		
공연담당	박재연 팀장	홍보담당	송주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음악, 런던에서 펼쳐진다
- 런던 최고 공연장 사우스뱅크센터에서 개최되는
쌍쌍, 안숙선, 나윤선, 박경소 공연을 비롯 총 6개 팀 공연-

국악계 살아있는 전설 안숙선 명창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등 한국의 독창적 음악을 전 세계에 알려온 6개 한국음악팀의 공연이 런던에서 펼쳐진다.

10월 2일(화)부터 11월 20일(화)까지 열리는 K-뮤직페스티벌은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용호성/이하 문화원)과 영국 현지 프로덕션인 시리어스(SERIOUS)가 공동 주관하며, 런던 최고 공연장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를 비롯하여 킹스플레이스(Kings Place), 리치믹스(Rich Mix) 등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다.

K-뮤직페스티벌은 그동안 가디언(The Guardian), 타임스(The Times) 등 영국 유력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송라인즈(Songlines), 에프루츠(fRoots) 등 전문음악매체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은 지난 2016년 K-뮤직페스티벌 개막공연 무대에서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 이후 2017년 영국 최고의 재즈클럽 로니스콧(Ronnie Scott's Jazz Club)에서 다시 초청을 받아 단독공연을 선보였으며, 금년에도 K-뮤직페스티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런던재즈페스티벌(EFG London Jazz Festival)에서 공식초청을 받아 런던 무대에 다시 선다. 또한 지난 해 개막공연에 참여한 블랙스트링은 올 해 영국 월드뮤직 매거진 송라인즈가 주최하는 '송라인즈 뮤직 어워드(Songlines Music Awards)'를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 K-뮤직 페스티벌에서 초청된 잠비나이는 영국 주

요 언론에서 호평을 받으며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 영국 유명레이블 ‘벨라유니언(Bella Union)’ 과 음반 계약을 하였으며, 2018년에는 사우스뱅크 센터가 주최하는 세계적 음악축제 멜트다운페스티벌(Meltdown Festival)에서 초청을 받기도 했다.

용호성 문화원장은 “K-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한국 음악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국 음악인들이 영국과 유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해왔다” 고 밝혔다.

- 붙임 1. 제5회 K뮤직 페스티벌 일정표
- 2. 페스티벌 참가팀 소개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영한국문화원 공연팀 박재연 공연팀장(☎ +44(0)20 7004 26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일 시	10월 2일(화) 19:45
공연팀	쌍쌍(SsingSsing)
장 소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 Purcell Room)
내 용	런던 최고 공연장 사우스뱅크센터에서 ‘민요록’으로 유명한 ‘쌍쌍’이 페스티벌의 개막을 장식한다. 쌍쌍은 명실상부 이 시대 최고의 경기 민요 소리꾼인 이희문과 연극배우이자 서도소리꾼인 추다혜, 타악기 연주자겸 경기소리꾼인 신승태까지, 세 명의 내로라하는 보컬리스트가 소속되어 있다. 또한 밴드사운드에는 한국의 대표 영화음악가 장영규의 베이스, 음악동인고물 이태원의 기타, 이철희의 드럼으로 이루어져 화려한 구성원을 자랑한다.

일 시	10월 9일(화) 19:30
공연팀	양상블이도(Ensemble E-Do)
장 소	리치믹스(Rich Mix)
내 용	런던 쇼디치의 독립문화공간 리치믹스에서 유경화가 이끄는 ‘월드뮤직양상블-이도’의 공연이 개최된다. 철현금, 장구, 대금, 베이스, 드럼 등으로 구성된 5인조 밴드 이도는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장르의 연주자들이 한 데 모여 강렬한 공연을 연출한다. 특히 K-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조풍연 영상감독이 이도의 무대를 연출할 계획으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 시	10월 19일(금) 20:00
공연팀	어반사운드(Urban Sound)
장 소	킹스플레이스(Kings Place Hall 2)
내 용	런던 클래식 전문공연장 킹스플레이스에서 여성 트리오 어반사운드의 공연이 펼쳐진다. 양상블 시나위의 창립 멤버였던 김지혜를 주축으로 대만 출신 피아니스트 벨첸(Belle Chen), 바이올리니스트 최보람(Cita Chay)의 세 명으로 구성된 어반사운드는 실험적인 음악으로 발표하는 곡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 연주가이자 작곡과 공연기획을 겸하고 있는 김시울과의 협연으로 색다른 한국 음악을 런던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일 시	11월 3일(토) 18:00
공연팀	안숙선(Ahn Sook-Sun), 김준수(Jun-Su Kim)
장 소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 Purcell Room)
내 용	영국에서 최초로 안숙선 명창의 '흥보가' 완창이 사우스뱅크센터에서 펼쳐진다. 판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창법' 중 하나로 손꼽히며 영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 안숙선 명창의 런던 공연 소식에 현지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 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인 고수 조용수가 안숙선 명창과 함께할 예정이며, 2018년 6월 런던에서 열린 런던국제연극제(LIFT Festival)의 개막공연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헬렌 역을 맡아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던 소리꾼 김준수의 협연이 더해져 수준 높은 판소리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일 시	11월 19일(월) 19:45
공연팀	근동사중주단 + 박경소(Near East Quartet + Kyungso Park)
장 소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 Purcell Room)
내 용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 손성제가 이끄는 근동사중주단(Near East Quartet)이 사우스뱅크센터에서 공연을 가진다. 근동사중주단은 한국 음악가 최초로 해외 연주자 협연 없이 단독으로 올해 8월 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재즈음반사 'ECM'에서 앨범을 발매하며, 이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K-뮤직페스티벌 공연에선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경소의 음색이 더해져 한국의 멋을 입은 새로운 재즈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2016년 열린 K-뮤직페스티벌을 통해 런던에서 그 이름을 알렸던 박경소는, 당시 무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재즈 색소포니스트 앤디 셰퍼드(Andy Sheppard)와의 협연으로 현지 유명 언론인 가디언의 호평을 이끌어 냈었다. 미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그 소리를 알리고 있는 박경소는 올 8월 브라질리아, 상파울로 등에서 열린 투어에서도 브라질의 유명 피아니스트 벤자민 타웁킨(Benjamim Taubkin)과의 협연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 근동사중주단과의 협업을 통해 런던의 음악인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일 시	11월 20일(화) 19:30
공연팀	나운선, 김혜림 & 앨리스 자와드즈키 (Youn Sun Nah, Hyelim Km & Alice Zawadzki)
장 소	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 Queen Elizabeth Hall)
내 용	한국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재즈보컬리스트 나운선과 대금연주자 김혜림, 영국의 보컬 겸 바이올리니스트 앨리스 자와드즈키의 협연 공연으로 2018년 K-뮤직페스티벌의 막을 내린다. 2016년 K-뮤직 페스티벌에서 오프닝 공연을 맡았던 나운선의 공연과 함께 2017년 K-뮤직 페스티벌에서 함께 무대를 펼쳤던 김혜림과 앨리스 자와드즈키가 같은 날 런던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소식에 많은 유럽 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쌍쌍(SsingSsing)



2015년 결성된 6인조 밴드 ‘쌍쌍’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기 소리꾼으로 손꼽히는 이희문과 서도 소리꾼이자 연극배우인 추다혜, 타악기 연주자이자 경기 소리꾼인 신승태가 무대 앞에서 보컬을 맡는다. 이어 어어부 프로젝트와 영화음악감독 등으로 알려진 장영규의 베이스와 이철희의 드럼이 사운드 기반을 세우면, 국악실내악 모임 ‘음악동인고물’ 출신 이태원의 기타 소리가 무대 뒤편을 가득 채운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서 불리던 경기민요는 다른 지역 민요와 같이 특정 음을 떨거나 꺾는 등의 표현 없이 감정 표현이 부드럽고 서정적인 가락이 특징이기에 주로 여성 소리꾼을 위한 곡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에 경기민요 판에서 보기 드문 남자 소리꾼인 이희문은 그 여성적 소리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쌍쌍 공연에서 가발과 망사 스타킹, 아찔한 하이힐을 신은 채 여성의 모습으로 무대에 선다.

국내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외국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들의 열정적 노래와 스타일에 열광했고, 결성 1년 만에 급속히 쌍쌍의 이름이 퍼져나갔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보컬 스킬과 단출하지만 탄탄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노래 한 구절마다, 몸짓 하나하나에서 표현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이들의 공연을 특별하게 만든다.

작년 9월, 쌍쌍은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인 엔피알(NPR)의 인기 프로그램 타이니데스크콘서트(Tiny Desk Concert)에 출연하여 그 명성을 높였다. 타이니데스크콘서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가들의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델(Adele), 존레전드(John Legend)와 같은 팝 스타들이 타이니데스크콘서트에 출연해 노래한 바 있으며, 여기에

쌍쌍이 아시아 음악가로는 처음으로 출연하였다.

한국의 민요를 쌍쌍만의 특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독창적 무대와 ‘박수무당’을 콘셉트로 완성된 파격적 의상과 여장에 세계인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엔피알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쌍쌍의 공연영상은 2018년 9월 현재까지 이백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앙상블이도(Ensemble E-Do)



앙상블 '이도'는 한국전통음악에 바탕을 두고 재즈나 록, 인도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우리 전통악기 철현금 연주로 유명한 유경화가 이끄는 '이도'의 음악은 장구, 대금 등의 전통 악기에 기타, 베이스 등 서양악기의 소리가 더해져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매우 독창적 연주를 들려준다.

'이도'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룹명과 함께 음악적 이념 또한 따르고자 하는데, 세종대왕이 당시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기 위해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어민락'처럼, '이도' 역시 자신들의 음악을 만인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 즐기고자 한다.

'이도'는 같은 맥락으로 세계 곳곳에서 뜻 깊은 공연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연이은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멕시코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으로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이도'는 아름다운 연주 위에 한국의 싹김곳에서 영감을 받은 어연경 명창의 소리를 선사하였고, 이에 맞춰 관람객들이 직접 황천강을 건너는 망자들을 위로하고 노자를 챙겨주는 퍼포먼스에 참여해 멕시코 지진피해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제5회 케이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조풍연 영상감독이 '이도'의 무대에 화려한 영상 배경을 더하여 공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어반사운드(Urban Sound)



어반사운드는 2017년 런던에서 창단된 여성트리오 그룹으로, 영국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 유명세를 넓혀가고 있다.

단독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과 클래식, 재즈, 실험음악 등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지향하며 작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2018년 1월에는 '아시안 사운드 프로젝트 NATURE'라는 이름으로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과 인천 엘림아트센터에서 공연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 연주자이자 작곡가 겸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시율과의 협연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시율은 현대사회에서 전통 국악이 갖는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연구와 발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이번 K-뮤직 페스티벌에서 전통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어반사운드와 김시율의 협연을 통해 케이뮤직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소개한다.

안숙선(Ahn Sook-Sun)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이자 판소리 명창인 안숙선 선생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으로 꼽힌다. 안숙선의 외삼촌 강도근 선생은 동편제 판소리 인간문화재, 이모 강순영 선생은 가야금 명인, 그리고 외당숙 강백천 선생은 대금산조 인간문화재이다. 이와 같은 국악 집안 환경으로 이미 여덟 살에 국악을 시작했던 안숙선 명창은 60년째 국악에 몸담으며 현존하는 국악의 역사로 불리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 동안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동안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예술 활동은 물론 국악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국악계 내에서는 안숙선 명창을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시대의 소리꾼’, ‘판소리계의 거장’ 등의 타이틀로 부르며 그 지나온 발자취와 작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특히 1998년에는 ‘천상의 소리’라는 극찬과 함께 프랑스 문예공로훈장인 오피시에(Officier)를 받았으며, 다음 해 대한민국 육관문화훈장과 ‘올해의 국제적인 음악인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에서 주목 받아 왔으며 이에 안숙선 명창은 이미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약 40여 개국의 초청을 통해 수많은 공연을 선보였지만, 런던에서 ‘흥보가’의 완창을 펼치는 것은 이번 K-뮤직 페스티벌이 최초이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의 하나인 흥보가는 전래동화인 흥부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동리 신재효가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본적으로 골계적인 대목이 많아 재담소리로 분류되기도 하는 흥보가는 다른 판소리보다 익살스러운 것이 특징이며, 긴 호흡에서 나오는 성음과 흔들림 없는 장단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발림 등이 눈에 띈다.

이번 무대의 고수로는 많은 국악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용수 선생이 함께하여 공연의 전문성을 더하고,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문 자막도 함께 준비되어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판소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판소리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전 세대를 아우르며 넓은 층의 인기



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소리꾼 김준수와와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김준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박금희(본명 박방금) 명창에게 소리를 배운 바 있으며, 중앙대에 재학하는 동안 한승석 명창에게서 ‘적벽가’를 전수받고 현재는 유미리 명창에게 ‘춘향가’를 배우는 등 그 행보를 더해가고 있다.

2017년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악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는 김준수는, 올해 6월 런던에서 열렸던 런던국제연극제(LIFT Festival)의 개막공연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헬렌 역을 맡아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근동사중주단 + 박경소(Near East Quartet + Kyungso Park)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손성제가 이끄는 근동사중주단(Near East Quartet)은 그들만의 창조적인 역량을 펼쳐왔다. 다섯 살부터 음악을 시작해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을 익히고, 서울예고 작곡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작곡과에 진학하여 20여 년간 클래식 외길을 걸었던 손성제는 돌연 재즈음악을 배우기 위해 미국 버클리 음대 유학길에 올랐다.

타고난 재능과 꾸준한 노력으로 버클리를 수석 졸업한 손성제는 뉴욕 재즈 명문인 퀸스컬리지(Queens College)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완성도 높은 작업들로 호평 받으며 다양한 뮤지션들과 협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음악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그가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을 재즈에 입히면서 그 음악을 함께할 근동사중주단을 결성했다.

한국대중음악상 크로스오버 음반 상을 받은 근동사중주단의 2015년 앨범 '패싱오브일루전(Passing Of Illusion)'은 독일의 유명 재즈음반사인 ECM(Edition of Contemporary Music)의 대표 만프레드 아이허(Manfred Eicher)의 마음을 움직여 올해 8월 ECM을 통해 정규앨범을 발매하게 되었다. 해외 연주자와의 협업 없이 한국인 음악가가 ECM에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것은 아시아 아티스트로서 최초이다.

이번 K-뮤직 페스티벌 공연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자인 박경소의 음색이 더해져 한국의 멋을 입은 새로운 재즈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2016년 K-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런던에 그 이름을 알렸던 박경소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재즈 색소포니스트 앤디 셰퍼드(Andy Sheppard)와의 협업으로 영국 언론 가디언(The Guardian)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미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그 소리를 알리고 있는 박경소는 이번 근동사중주단과의 협업으로 런던 음악인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운선, 김혜림 & 앨리스 자와드즈키
(Youn Sun Nah + Hyelim Km & Alice Zawadzki)



나운선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이자 유럽 최고의 재즈아티스트로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나운선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슈발리에 훈장(Chevaliers of the Ordre des Arts et des Lettres)을 수훈하고 독일의 저명한 재즈 어워드인 에코재즈(ECHO JAZZ)에서 올해의 해외아티스트 여자보컬리스트상을 수상하였으며, 프랑스와 독일 골든 디스크에서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프랑스 최고 극장인 파리 샤텔레극장(Théâtre du Châtelet)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여 전석 매진을 기록함과 동시에 15분간의 기립박수를 이끌어 냈고, 2014년에는 소치 동계 올림픽의 폐막공연 무대에도 올랐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나운선은 이미 2016년 ‘제3회 케이뮤직페스티벌’ 개막공연 무대에서 열광적 호응을 얻어 2017년 영국 최고 재즈클럽 로니스콧(Ronnie Scott’s Jazz Club)에서 초청 받아 단독공연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런던재즈페스티벌(EFG London Jazz Festival)에서 공식초청을 한 바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나운선과 함께 대금연주자 김혜림과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앨리스 자와드즈키 (Alice Zawadzki)가 같은 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혜림과 앨리스 자와드즈키는 지난해 K-뮤직페스티벌에서 이미 한 차례 런던의 관객들에게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당시 한국의 전통악기인 대금과 서양의 대표적 악기인 바이올린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음악에 관객은 열광하였으며, 재즈와이즈(Jazzwise)와 BBC라디오 등 현지 유명 언론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